

# 지역과 시민, 지속가능 미래 만든다

###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 개막 축하 영상

### PBI 설립자 엘렌 브라운 대표 기조강연

###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 등 워크숍도

전주시가 시민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행복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인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식을 가졌다.

올해로 5회를 맞는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전주시와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 전국가향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사람·생태·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국제회의는 '지역회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로컬 퓨처스의 대표이자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가치를 전주로 삼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여사의 개막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지역회의 원동력은 시민들의 힘'이라는 내용의 개막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 미국 공공은행(PBI) 설립자인 엘렌 브라운 대표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재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 기적의 부활'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또 로컬푸드 전문가인 아나 린백 로컬푸드 전문가 디렉터와 델라 던컨 영국 슈미허대학교 교수가 각각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의 재탄생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첫날 국내의 전문가와 각분야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공동체의 자산화와 도시재생 △전주시 푸드플랜(전주푸드2025)의 방향과 과제 △사회투자기금 활성화 방안과 과제 등 3개 세션별 워크숍도 진행됐다.

올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17일 워크숍 결과 발표와 조현 한 거래 논설위원의 '공동체의 회복이



전주시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행복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인 '2019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막식을 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복의 열쇠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미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폐막공연 등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계숙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국제회의는 무한경쟁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과 사람, 생태가 최우선이 되는 따뜻한 사회적경제 가치를 시민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전주의 미래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글로벌 경제의 위협 속에

서 우리가 살아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로컬 퓨처스는 '행복의 경제학'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호주의 언어학자이자 에코페미니스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가 설립한 민간단체로, 지난 2012년부터 미국과 호주, 인도 등에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 판사출신으로 18일자로 부임 조국 전 장관, 검찰 강화 '주목'



용됐고 2년 임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연임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

는 18일이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해왔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경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다시 임용된 것은 이준호(56·16기) 변호사 이후 3년7개월여만이다.

전임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인 정병하(59·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했고, 3개월여간 공석 상태였다. 정 변호사는 2016년 6월에 임

이왔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날 11일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공적인 대검 감찰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를 강조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현직 검사와 판사 등이 연루된 '김홍수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대검 감찰부장을 임기제 개방적으로 전환했다. /뉴스

#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키운다

### 전북대병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10회 노벨상을 꿈꾸는 임상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권역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의과대학(의예과 포함)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학과 기초의학을 접목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다음달 15일까지 지원 가능하며 겨울방학 기간 중 4주 동안(개인별 선택) △ 기초 및 임상연구 △ SC 논문 작성 △ 임상진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의술의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 기초의학연구에 대한 경쟁력을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뜻있는 미래의 명의를



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프로그램 담당자(전북대병원 공공전문진료행정팀, Tel) 063-250-2453), 지원관련서류는 전북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홈페이지(<http://www.cuh.co.kr/cuh/brea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여인숙 방화범

###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폐지를 주유며 생활하던 70, 80대 투숙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6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이르면 오는 12월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에 이미 노출돼 있는 사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나날 11월에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가 어렵다"며 "12월 중 기일을 잡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

### 정읍 주택에서 화재

### 80대 노인 사망

16일 오후 2시10분께 전북 정읍시 이평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하던 중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A(85)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



### 주거복지 더욱 '촉촉하게'

전주시·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운영강화를 위한 공감 토크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들의 주의를 인접시키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주시처럼 지자체 단위의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주거복지 실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국 최초 트윈세대 전용공간 조성사례, 전국에 알린다

### 전주시, 부산 벡스코 '전국도서관대회'서 공간 짓기 포럼 개최

전주시가 전국 도서관 사서, 도서관 전문가, 관련학과 학생 등과 오는 12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여는 트윈세대(12~16세) 전용공간 조성사례를 공유했다.

시는 1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전주시립도서관 트윈세대 공간 짓기'를 주제로 한 포럼을 열고 트윈세대 프로젝트의 과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을 비롯한 도서관 관련 단체,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 전시 관계자 등 약 3500명이 참석해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도서관계 최대 축제다.

시는 이번 전국도서관대회의 '전주시립도서관 트윈세대 공간 짓기' 포

럼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추진된 '전주시립도서관 트윈세대 공간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는 신혜미 프로젝트 총괄매니저(C Program)가 프로젝트 배경과 취지, 프로젝트의 협업 구조 및 기획의도 등을 설명했으며, 공간 설계를 맡은 지정우 EUS+건축 대표가 '트윈세대와 공감하는 공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또한 오는 12월 개관하는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의 운영자로서 참여하는 송지은 전주시립도서관 사서의 '트윈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에 개관하는 중화산동 전주시립꽃심도서관의 3층

에 230평 규모로 운영되는 전국 도서관 최초의 트윈세대 공간인 '우주로1216'은 아이들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우리들의 공간', '우리들의 새주소'라는 뜻이 담겨있다.

우주로1216은 소통·발산·창작·사색의 4개의 경험 공간으로 이뤄져, 방과 후 시간과 주말·휴일 딱히 할 공간이 없었던 트윈세대가 집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과 사색을 자유롭게 실행해 보는 제3의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한 공공도서관장은 "전주시의 트윈세대 공간에 대한 궁금증으로 포럼에 참석했다"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10대 초반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경험을 하며 도서관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도로 보인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수십년간 신도 성폭행·추행 목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은 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전북의 어느 교회 목사 A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하는 신도에게 "하나님의 사랑

으로 하는 거니 관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주로 신앙심이 깊은 신자나 가정이 있어 주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신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A목사

를 소환해 조사했다. A목사는 경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법원은 A목사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